박선민 SBS긴급출동SOS24 사후관리담당 사회복지사

"제작초기에서 사후관리까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SBS 긴급출동SOS24. 이와 유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은 물론 케이블방송에까지 매우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며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SBS긴급출동SOS24를 주목하는 이유는 제작팀 인력구성에 사회복지사가 사후관리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 자문 형태로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예는 많이 있지만 SBS 긴급출동SOS24와 같이 제작팀 자체에 사회복지사의 인력이 정식으로 구성되는 예는 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향상까지 이끌어 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박선민 사회복지사를 만나 그녀의 활동기를 들어보자.

◈ 처음 방송사와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졸업 후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상담 교육을 받고 2년여를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 중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가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5년 11월 SBS긴급출동SOS24 팀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인정받아 방송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 SBS긴급출동SOS24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은?

제작진의 경우 하나의 아이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한 후 바로 다음 아이템을 잡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과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제작팀 안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두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제작 과정 중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으며 방송이 종료된 후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게된다.

나의 역할이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기간과 깊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전문단체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지원을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방송을 통해 비춰진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음 방송의 도입부터 사회복지사가 참여한다면 중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제작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로 참 안타까웠다.

개인적인 소망은 개별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방송사에 사회복지사들로 이루어진 팀이 생겨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자문과 함께 지원을 해나갔으면 한다. 앞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이나 만족도는?

방송국의 특징이 일정한 틀이 없이 자유롭게 일하기 때문에 자기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같다. 나도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복지관에서처럼 결재를 받아야 하거나 서류를 만드느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없다.

반면 사례수집이나 레코딩을 함에 있어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업무에 대해 스스로 챙겨서 계속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갑작스런 외부의 요청이나 물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나도 우연하게 이 일을 하게 되었지만 매우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박선민 사회복지사는 가족이나 사회문제를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 추후 방송사로 진출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은?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고민이 되기도 한다. PD나 작가들은 방송을 통해 만난 클라이언트들을 마치 가족처럼 생각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려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는 중재와 조정, 일정한 간격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또 개인적으로는 고용형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방송국과 관계없이 팀에서 고용된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방송 종료 후 채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급여도 주급형태로 방송이 나가지 않는 주의 경우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방송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조정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